

모리와 졸린별의 밤

나누면 따뜻한 밤의 이야기





별이 반짝이는 어느 밤, 모리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보랏빛 별무늬 망토가 달빛에 살랑였지요. 두근거리며 모리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오늘 밤, 무엇을 만날까?"



까만 하늘에서 작은 별 하나가 뚝, 모리의 창가로 내려왔어요.
모리는 살포시 그 별을 품었어요. "넌 누구야?" 작은 별은
모리의 품 안에서 반짝였어요.



"나는 졸린별이야." 조용히 속삭이는 졸린별. 모리는 졸린별을 품에 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렀어요. "잘 자라, 작은 별이."



졸린별은 모리의 노래에 사르르 잠들었어요. "네 노래가 참 따듯하네." 졸린별이 속삭이며 살포시 모리에게 기대었지요.



모리는 졸린별 옆에서 부드럽게 자장가를 이어갔어요.
작은 별 조각을 베고 포근한 꿈속으로 스르르
잠들었어요.



별빛 아래 작은 고양이는 꿈꾸듯 잠들었어요. 모리는
별의 향기를 살짝 느끼며, 미소를 지었지요.



"고마워, 모리." 하늘로 날아가며 졸린별이 속삭였어요.
모리는 눈을 감고 고요히 미소를 지었어요.



모리는 홀로 남아 별 조각에 머리를 대고 자장가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이며 모리를
지켜보았지요. 오늘 밤도 별이 작은 모리를 보듯 작아 보였지요.



끝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모리와 졸린별의 밤

글·그림 올레길

© 2026 올레길 · Storypia